

MEKONG TIMES

베한타임즈
VIETNAM-KOREA TIMES

May. 18
2026

3면



\$116억이 베트남 반도체에 꽂혔다 후발 주자의 도전, 성공할 수 있는가



오토바이 나라가 전기차 나라로- 베트남 EV 혁명

베트남에서 매달 오토바이 25만 대가 팔리던 나라가 달라지고 있다

2025년 베트남 전기차 판매량은 17만 7,295대로 전년 대비 256.2% 폭증했다. 이란전쟁 이후 유가 불안으로 국내 항공료가 15~20% 오르고 주유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차가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됐다.

6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 쿨해졌다

2026 로컬 브랜드 혁명, 글로벌 패스트패션을 처음으로 앞서다

2026년, 베트남 패션 역사에 처음으로 이런 숫자가 등장했다.

로컬 브랜드 점유율 45% - 글로벌 패스트패션(55%)을 바짝 뒤쫓더니 올해 처음으로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12면



새벽 4시 반, 정글 속으로

까띠엔의 긴팔원숭이가 부르는 노래

새벽 4시 45분, 동나이강 선착장에 서면 아직 하늘은 검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공원 본부에 도착하면 레 인저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앞을 가리킨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14면

MEKONG TIMES

주소: _____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210호(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웹사이트: mekongtimes.net
이메일: jonggak7@gmail.com
광고문의: 085 4232 600

\$116억이 베트남 반도체에 꽂혔다 후발 주자의 도전, 성공할 수 있는가

글로벌 FDI 170개 프로젝트 • 삼성 \$40억 패키징 확정 • 2030년 OSAT 글로벌 점유율 8~9% 목표 • IC 설계 인력 7,000명 vs 필요 35,000명

베트남 반도체 산업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2026년 현재 베트남에는 170개 반도체·첨단기술 FDI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누적 등록 자본은 116억 달러에 달한다. AI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중국 공급망 분산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차이나 플러스 원"의 최우선지로 낙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규모만으로는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없다. 베트남이 진짜로 넘어야 할 벽은 따로 있다.

반도체 FDI 누적 총액	시장 규모 2026년	OSAT 글로벌 점유율 목표
\$11.6B 170개 프로젝트	\$10.16B 2030년 \$16.5B 전망	8~9% 현재 1% → 2030 목표

확정 · 진행 중인 주요 투자 프로젝트

기업	국적	투자액	분야·위치	상태
인텔 (Intel)	미국	\$4.1B	OSAT·호치민 사이공하이테크 파크	운영 중 - 글로벌 패키징 물량의 50% 처리
삼성전자	한국	\$4.0B	첨단 패키징 · 타이응웬성	2026 Q1 확정, AI칩·HBM 패키징 특화
암코 (Amkor)	미국	\$1.6B	OSAT 대형 공장 · 박닌성	세계 최대 단일 패키징 공장, 2026 양산
하나마이 크론	한국	\$930M	칩 패키징 · 박닌성	운영 중, 2026년 추가 라인 증설
폭스콘 서킷	대만	\$383M	반도체 부품 공장 · 박장성	2024 승인, 건설 진행 중
FPT + 엔비디아	베트남/미국	\$200M	AI 팩토리·데이터 센터 · 하노이	2024 MOU, 2026 착공 목표
코히어런트	미국	\$127M	실리콘카바이드 기판 · 동나이성	2025년 7월 준공, 운영 중
비에스아이 (BESI)	네덜란드	\$4.9M	반도체 장비 · 사이공하이테크파크	2024 운영 개시, 2단계 확장 중

의 공통 진단이다.

첫째, 인력 절대 부족이다. 현재 반도체 분야 종사자는 패키징·테스트·설계 합산 약 1만 5,000명이다. 2030년 목표인 3만 5,000명을 채우려면 5년 내 두 배 이상의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 인텔 베트남 사이트 총괄 케네스 제는 "STEM 기초에서 고급 응용까지 이어지는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둘째, 전공정 (웨이퍼 제조) 역량이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 목표인 "2026년 첫 소규모 웨이퍼 팹 설립"은 진행 중이지만, 12인치 최첨단 노드와의 기술 격차는 수십 년에 달한다. 셋째, 에너지·전력 안정성 문제다. 암코 베트남 총괄 김성훈은 직접 LPG 우선 공급 보장을 당국에 요청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안정적 전력이 필수인데 베트남은 아직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허가·인센티브 조율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 "베트남이 의사결정을 조율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 진화할 수 있다"는 분석가들의 조건부 긍정론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다.

베트남 반도체 성패의 열쇠 — "조립국"에서 "설계국"으로의 전환

베트남의 반도체 전략은 "C=SET+1" 공식으로 요약된다. C(칩)=S(특화)+E(전자 기기)+T(인재)+1(협력).

지금 베트남이 잘하는 것은 OSAT(패키징·테스트)다. 인텔이 전 세계 패키징 물량의 50%를 베트남에서 처리하고, 암코의 최대 단일 공장이 박닌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패키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 반도체 전략(Decision 1018)은 2030년까지 IC 설계 기업 100개 설립을 목표로 한다. FPT반도체가 IoT·자동차용 칩을 설계하고 있고, TSMC 제조 방식으로 CT그룹이 자체 ADC칩을 개발하는 등 IC 설계의 첫 싹이 트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퀄컴은 베트남에 세계 3번째 AI R&D 센터를 열었고, 엔비디아는 \$2억 규모 AI 팩토리 협약을 체결했다. 설계 역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지만, 수확까지는 최소 10~15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적 전망이다.

편집부 진단 - 베트남 반도체, 성공할 수 있나

"조립은 세계 수준, 설계는 걸음

마"-이것이 2026년 베트남 반도체의 정직한 자화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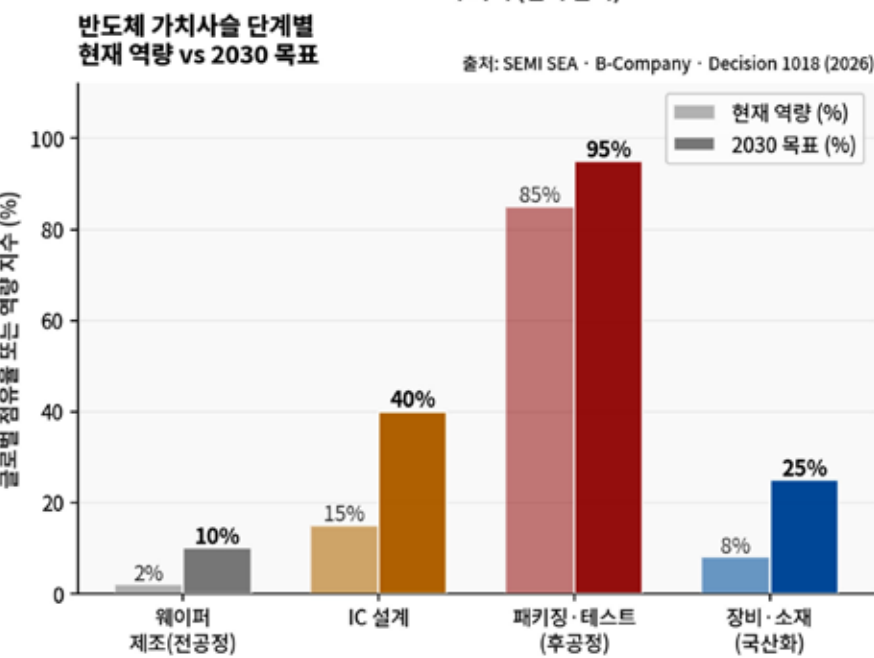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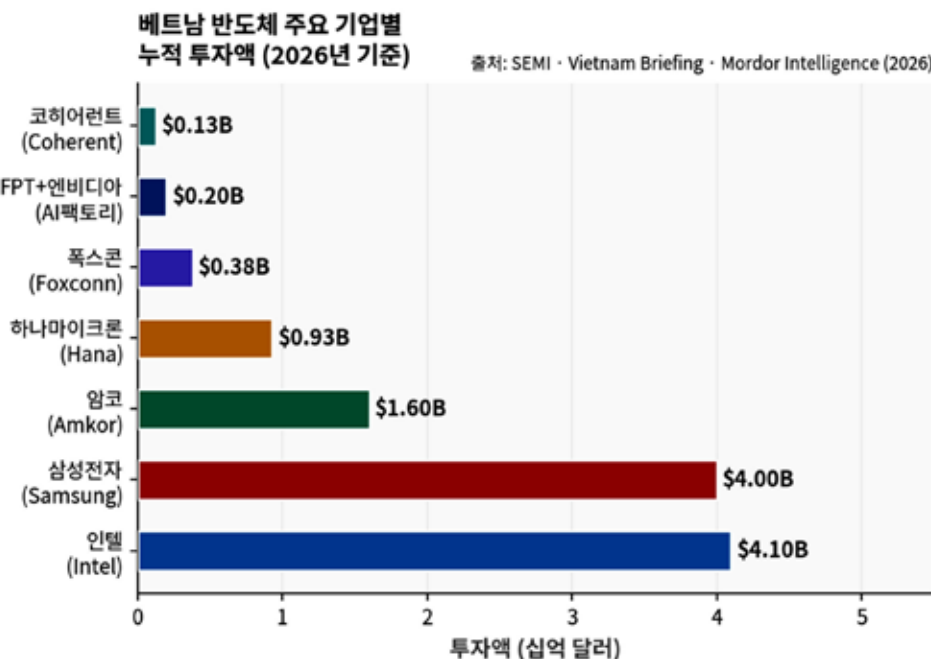
OSAT 분야에서는 2030년 글로벌 8~9% 점유율 달성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다.

IC 설계·전공정 도전은 10~15년의 장기 프로젝트다. 단기 과대 기대

는 금물이다.

성패의 열쇠 3가지: ① 인력 3만 5,000명 목표 달성 ② 전력 인프라 안정화 ③ 의사결정 조율 속도

한국 기업 기회: 장비·소재 납품 + 설계 협업 + 인력 교육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진입 루트다.



▲ 베트남 반도체 기업별 누적 투자액 | 가치사슬 단계별 현재 역량 vs 2030 목표 | 출처: SEMI SEA · Vietnam Briefing · Mordor Intelligence · Decision 1018 (2026)

베트남 반도체의 3대 구조적 강점

베트남이 이 정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저비용 때문만이 아니다.

첫째, 지정학적 우위다. US-중국 반도체 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 수요가 폭발했고, 미-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3년)가 이 흐름의 법적 기반이 됐다. 인텔·삼성·퀄컴이 동시에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수학·과학 교육 기반이 탄탄하다. 6,000명 이상의 IC 설계 엔지니어를 자체 양성한 20년 훈련 파이프라인은 지역 경쟁국 대비 확실한 차별점이다. 셋째,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약 2,200만 톤)다. 반도체·배터리·고성능 자석의 핵심 원료를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극복해야 할 4대 구조적 과제

"칩 아키텍트"가 없다. 조립은 잘하지만 설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햇볕에 말리던 망고가 세계 시장을 향한다 베트남 건과일 산업의 현재와 미래

2026년 건과일 수출 \$2.4억 · 건과일 시장 CAGR 15~20% · EU EVFTA 관세 제로 + 미국 접근성 확대 · 표준화 · 가공기술이 성패 가른다

베트남 전통 건과일 시장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금맥"이었다.

메콩 델타 농가 마당에서 햇볕에 말려 비닐봉지에 담아 파는 건망고, 재래시장 좌판에 쌓인 건코코넛 칩, 이름 없는 포장의 건과파야. 수십 년 동안 이 산업은 "싸고 투박하다"는 인식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2026년, 그 금맥이 터지기 시작했다. 과일·채소 수출 \$100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공·고부가가치화"가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고, 건과일이 그 선봉에 섰다.

과일·채소 수출 2026(e)	건과일 수출 2026 목표	건과일 시장 성장률
\$10.0B 역대 최초 \$100억 돌파	\$2.4억 CAGR +5.9% (2005~)	CAGR 15~20% 2025~2029 예상

■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 5대 과제

"싸고 투박한" 이미지를 벗어나 글로벌 프리미엄 건과일 시장에 진입하려면 공급망 전체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표준화·인증이 최우선이다. VietGAP→GlobalGAP→HACCP→BRC/IFS 인증 로드맵을 개별 농가가 아닌 협동조합 단위로 진행해야 한다. EU EVFTA는 인증 기업에게 관세 제로를 제공한다 - 인증이 곧 가격 경쟁력이다. 둘째, 가공 기술·설비 현대화다. 저온 진공건조(FD·Freeze Dry)·열풍건조(Air Dry)·분무건조 라인 도입으로 제품 일관성과 영양 보존율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셋째, 포장·브랜딩이 상품을 완성한다. "이름 없는 비닐봉지"에서 "스토리가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메콩 원산지 인증 + 천연·무첨가" 메시지가 유럽·일본 소비자를 움직인다. 넷째, 콜드체인 구축이다. 건과일도 고온·다습에 취약해 품질 저하가 빠르다. 메콩 델타→캄라이 항구 구간의 온도 제어 물류망이 없으면 프리미엄 수출은 불가능하다. 다섯째, 수출 채널 다변화다. 중국 편중(현재 50% 이상)에서 벗어나 EU·미국·한국·일본으로 분산해야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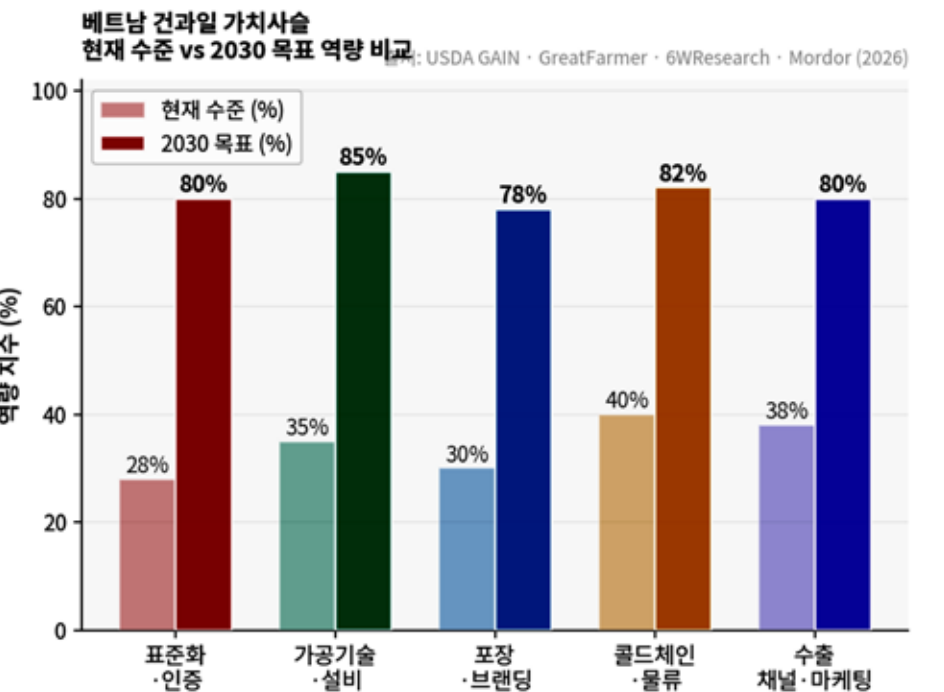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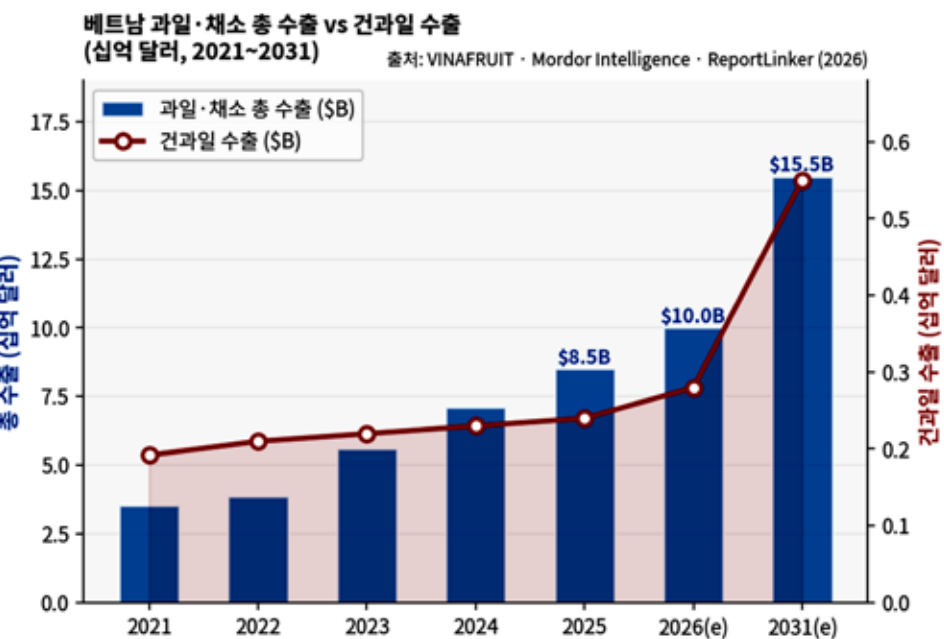
■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들어왔다 - 외자의 움직임

표준화와 고부가가치화의 잠재력을 알아본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 건과일·과일 가공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검토 중이다.

나포드(Nafoods Group)는 패션프루트·망고·드래곤프루트 가공 전문으로 현재 EU·미국·한국에 건과일·농축액을 수출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 중이다. USDA가 베트남을 "가공 허브"로 공식 주목한 것도 이 흐름의 반영이다. 달랏 하스팜(Dalat Hasfarm)은 AEON·롯데마트 등과 협력해 포장·규격화된 과일 제품 공급망을 완성했다. 한국 CJ제일제당·롯데푸드는 베트남 과일 원료를 활용한 스낵·음료 원자재 소싱을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이다. 일본 아지노모토·메이지는 베트남 열대과일 가공 원료 수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건강 스낵 시장(2030년 \$1,520억)을 겨냥한 외자의 베트남 진입은 이미 시작됐다 - 아직 대규모 독점 플레이어는 없다.

주요 참여 기업 및 브랜드 현황

기업 · 브랜드	국적	주력 품목	현황 및 전략
나포드 (Nafoods)	베트남	패션프루트 · 망고	EU · 미국 · 한국 수출. 냉동 · 건조 · 농축액 전문
비나 T&T	베트남	열대 과일 전반	베트남 최대 과일 수출사. 건과일 라인 확장 중
달랏 하스팜	네덜란드	채소 · 딸기	규격 포장 공급망 모델. AEON · 롯데마트 납품
Sun Garden	베트남	건코코넛 · 망고	하이퍼마켓 · 편의점 공급. 소셜커머스 채널 확대
CJ · 롯데푸드	한국	원료 소싱	현지 법인 통해 가공 원료 소싱 · 수입
아지노모토 · 메이지	일본	가공 원료	베트남 열대과일 원료 안정적 수입 계약 체결



▲ 베트남 과일·채소 수출 vs 건과일 수출 추이 | 건과일 가치사슬 현재 수준 vs 2030 목표 | 출처: VINA FRUIT · Mordor Intelligence · 6WRResearch · USDA GAIN (2026)

■ 건과일 산업의 현주소 - 풍부한 원료, 취약한 부가가치

베트남은 세계 최고의 열대 과일 원료 공급지다. 그러나 그 원료의 절반 이상을 "원형 그대로" 수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26년 베트남 과일·채소 수출은 \$100억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건과일·냉동과일·주스 등 가공품 비중은 전체의 15~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신선 원물이다. 건과일 수출 단가는 신선 망고의 3~5배, 코코넛의 2~4배에 달한다. 즉, 지금 원물로 내보내는 과일의 절반만 건조·가공해도 수출액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다. 전통 건과일 생산의 90% 이상이 소규모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햇볕 건조·가정용 오븐 사용이 일반적이다. 제품마다 수분 함량·당도·색상이 달라 "표준 없는 시장"이 됐다. EU·미국·일본 시장이 요구하는 잔류농약 기준·식품안전 인증·일관된 품질을 현재 구조로는 충족하기 어렵다.

편집부 평가 - 베트남 건과일, 지금이 진입의 골든타임이다

원료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항상 "이후 단계"에 있다.

표준화·인증·가공·브랜딩 - 이 4가지가 갖춰지는 순간 베트남 건과일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한다.

CAGR 15~20% 성장하는 건과일 시장에 아직 독점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다 - 지금이 선점 기회다.

한국 기업 기회: ① 가공설비(동결건조·진공건조) 수출 ② 원료 소싱 파트너 ③ K-스낵 브랜드로 OEM 생산

EVFTA 관세 제로 + CPTPP + 한-베 FTA - 인증 기업에게 이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은 없다.

[출처: VINA FRUIT · Mordor Intelligence · 6WRResearch · GreatFarmer · ReportLinker · USDA GAIN · VietNam News · Asemconnect/Vietnam (2025~2026)]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 - FTSE D-134일 VN-Index 1,860p, 2,000p가 보인다

5월 첫째 주 외국인 순매수 전환 • P/E 12.7배 저평가 • 무디스 전망 "긍정적" • 9월 21일 신흥시장 편입 카운트다운

이번 주 베트남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조용히 일어났다.

5월 첫째 주, 연초부터 4개월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던 외국인 순매도 행진이 끝났다. HoSE에서 외국인이 8,406억 동 순매수로 전환했다. 매수 종목은 TCB•HPG•MBB•VNM•MSN 등 VN30 대형 블루칩이었다. SSI리서치는 "1,915p 고점에서 한 달 이상 조정을 거친 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변했다"며 "이것이 외국인이 돌아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VN-Index 5월 9일	FTSE 편입 D-Day	2026 Forward P/E
1,860p YTD +30% • 아시아 최고	D-134일 9월 21일 공식 적용	12.7배 역사 평균 하회 •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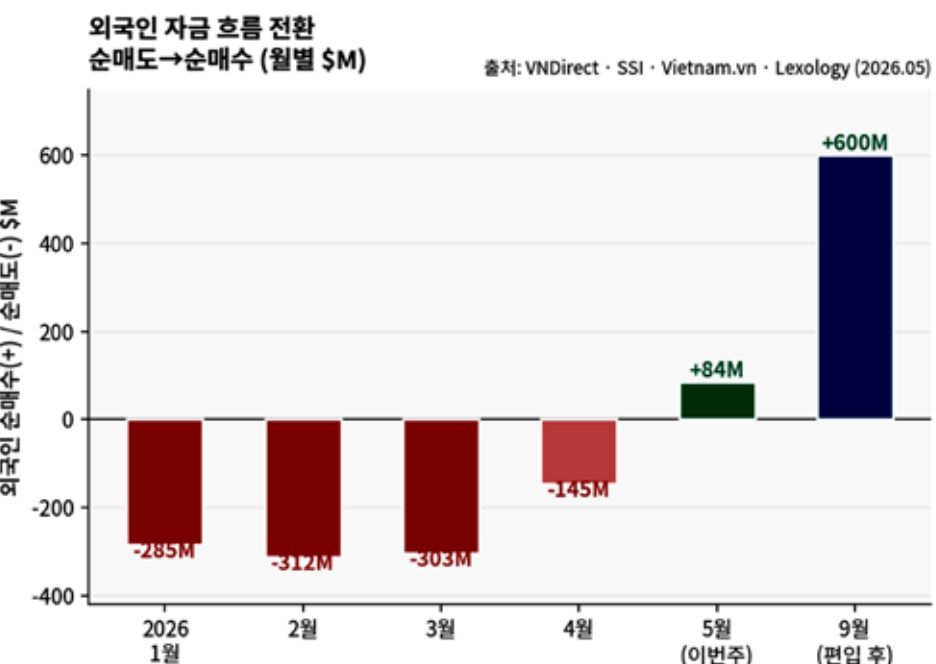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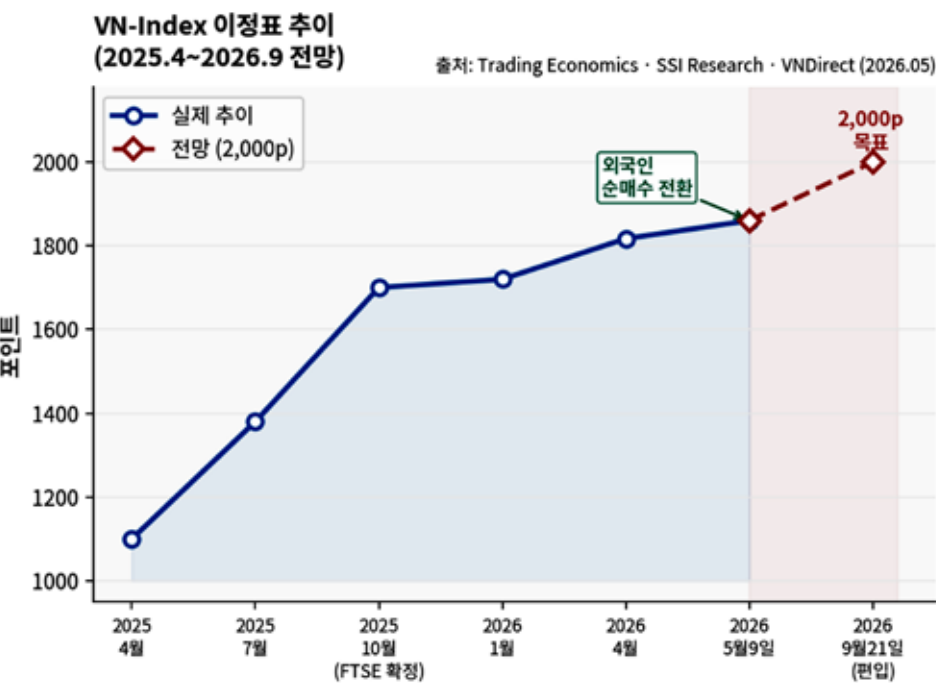
■ 2,000p 시나리오 - 조건과 리스크

VNDirect와 SSI리서치는 모두 2026년 VN-Index 목표를 1,920~2,000p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상승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9월 21일 FTSE 편입 후 패시브 ETF 자금 15억 달러, 액티브 펀드 포함 최대 25~40억 달러 유입이 예상된다. FTSE EM 편입 지수에서 베트남 비중은 0.22%로, 이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수십 억 달러가 자동 유입된다. 둘째, 2026년 상장사 순이익 성장률 전망이 14.5% YoY다. P/E 12.7배는 역사 평균(15.6배)을 크게 하회해 저평가 구간이다. 셋째, 신용 성장 목표 15~20%와 SBV 기준금리 4.5% 동결 기조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한다. 리스크도 직시해야 한다. USD/VND 환율이 26,300대 약세를 유지하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압축되고, FOL(외국인 지분 한도) 제약이 남아 있어 일부 블루칩은 진입 자체가 막혀 있다. ESG 공시 기업 비율 25%, CCP 완전 가동 2027년 Q1도 미완 성과제다. 미-베트남 섹션 301조 청문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FTSE 편입 수혜 핵심 종목 - 지금 주목할 VN30

종목	종목 섹터	편입 비중 (예상)	FTSE 편입 수혜 포인트
빈홈스 (VHM)	부동산	최대 비중	FTSE 편입 후 패시브 자금 최대 수혜, 대형 공급 증가와 사회주택 정책 수혜 동시
빈그룹 (VIC)	복합	상위 비중	반도체•EV•헬스케어 복합 성장, 4월 이미 6.5% 일중 급등 선행 반영
하오팻 (HPG)	철강	상위 비중	고속철도•인프라 투자 수혜, FTSE 편입 후 외국인 매수 1순위 산업재
FPT Corp	IT•AI	중간 비중	엔비디아 시팩토리 파트너, 반도체 설계 및 디지털전환 수혜
비엠펜뱅크 (VCB)	은행	중간 비중	바젤III 충족 목표, 외국인 증자 참여 가능성 → FOL 개방 기대



▲ VN-Index 이정표 추이 (2025.4~2026.9 전망) | 외국인 자금 흐름 전환 (월별 \$M)
출처: Trading Economics • SSI Research • VNDirect • Vietnam.vn (2026.05)

■ 이번 주 핵심 - 외국인 순매수 전환의 의미

4개월 만의 전환이다. 단순한 하루치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매수 종목 패턴이 다르다. 연초의 "뉴스에 팔기(sell the news)" 차익실현 매도가 빈홈스•빈그룹 등 FTSE 편입 수혜 대형주에 집중됐다면, 이번 순매수는 테크콤뱅크 (TCB)•하오팻(HPG)•MBB•비나밀크(VNM)•MSN 등 펀더멘털 기반 블루칩으로 분산됐다. "전술적 차익실현 종료 + 구조적 재진입"의 전형적 패턴이다. 무디스가 이번 주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한 것도 외국인 심리 개선에 기름을 부었다. 실제로 매치드 오더(체결 기준) 기준 외국인은 최근 수 세션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협의 거래에서 순매도가 나타나는 것이 총계를 왜곡할 뿐이다.

편집부 평가 - 지금이 포지션 구축의 마지막 창문이다

외국인 순매수 전환 + 무디스 전망 상향 + D-134일 = 세 신호가 동시에 켜졌다. 역사적으로 FTSE 편입 3개월 전부터 지수는 평균 15~20% 추가 상승했다. P/E 12.7배 저평가 + 14.5% 이익 성장 = 지금 진입 근거는 충분하다. 단, VND 환율 변동•미-베트남 통상 리스크•FOL 제약은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한국 투자자: 미래에셋•KB•삼성 베트남 ETF가 가장 현실적인 진입 루트다.

[출처: Trading Economics • VNDirect • SSI Research • VanEck • Vietnam Briefing • Lexology (Duane Morris) • Vietnam.vn • FTSE Russell (2025~2026.05)]

오토바이 나라가 전기차 나라로 - 베트남 EV 혁명

2025년 판매 +256%, 빈패스트가 현대차·도요타를 동시에 앞질렀다

EV 시장 \$37억 · 빈패스트 점유율 34.4% · VF3 \$1만2천 미니 EV · 충전 인프라 15만 기 · 현대차 46.9% 급성장 · 2026년이 진짜 변곡점



베트남에서 매달 오토바이 25만 대가 팔리던 나라가 달라지고 있다

2025년 베트남 전기차 판매량은 17만 7,295대로 전년 대비 256.2% 폭증했다. 이란전쟁 이후 유가 불안으로 국내 항공료가 15~20% 오르고 주유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차가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됐다. 2026년 1~2월 전체 자동차 판매는 +22.4%, EV 비중은 전체의 34.7%까지 치솟았다. "EV는 빈부의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자의 선택"이 됐다.

EV 시장 2026년 규모	빈패스트 시장점유율	EV 판매 2025 실적
\$3.71B 2031년 \$8.84B • CAGR 18.95%	34.4% 2위 현대차 12.8%와 격차 확대	17.7만대 전년비 +256.2% • 역대 최고

▲ 베트남 전기차 연간 판매량 추이 (2022~2030 전망) | 2026 Q1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 출처: Focus2move · Mordor Intelligence · Euromonitor · VnExpress (2026)

이번 주 핫이슈 — VF3 \$1만2천 미니 EV가 시장 판도를 바꿨다

300만원대 전기차가 현실이 됐다. 2026년 베트남 EV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affordable(저렴한)"이다.

빈패스트 VF3(가격 VND 2억 9,900만~3억 1,500만 · \$1만2,300)는 출시 직후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며 하노이·호치민 대리점 앞에 대기 줄을 만들었다. 43마력 모터·18.64kWh 배터리로 도심 210km를 달린다. 각종 인센티브 적용 시 실구매가는 \$1만1,600으로 내려간다. "이 가격에 주차비·주유비 없이 탈 수 있다면 오토바이를 팔겠다"는 반응이 SNS에서 쏟아졌다.

중국 우링(Wuling Macaron)도 중반기에 VND 2억6,900만~3억2,900만(\$1만1,000~1만3,500)으로 진입 예정이어서 미니 EV 경쟁이 본격화된다. BYD 돌핀은 태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해 가격을 낮추며 베트남 시장 확대를 노린다.

현대차, 도요타를 처음 추월 — 한국차의 반격

2026년 1~2월 현대차 판매가 +46.9% 급등하며 처음으로 도요타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기아도 +34.8% 성장으로 7위를 유지하며 한국 브랜드 합산 점유율 19.3%를 기록했다

현대차 성장의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 아이오닉 5·EV6·코나 일렉트릭 등 EV 라인업이 "저렴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EV 포지셔닝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빈패스트가 점령한 저가 시장과 정면 충돌 대신 중·고가 세그먼트에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위주 라인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도요타는 베트남에서 BEV가 아닌 하이브리드·ICE 중심인데, 정부 BEV 우대세제(특별소비세 3%)가 현대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포드도 +45.8%로 4위. "EV 전환기 수혜"는 빈패스트만의 것이 아니다.

2030년까지 도시 EV 50% — 정책이 소비를 강제하다

베트남 정부의 EV 전환 의지는 "목표"가 아니라 "명령"에 가깝다. 소비자 선택이 아닌 정책 강제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등록세 0%(2027년 2월까지), BEV 특별소비세 3%(ICE 대비 대폭 절감), ASEAN 역내 조립 EV 수입관세 0%가 동시에 작동 중이다. 총 소유비용(TCO)이 동급 ICE 차량보다 15~25% 낮아졌다. 호치민 전기버스 전환(2025년 도시 버스 100% 전환 목표), 오토바이 40만 대 라이드헤일링 전기화, 빈패스트 충전소 V-Green의 2026년 초고속 허브 99개 신설이 겹쳐지면서 "충전 인프라 불안"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현재 전국 15만 기 이상의 충전 포트가 이미 깔려 있다. 2030년 도시 EV 50% 의무화는 "달성 가능한 목표"로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목 EV 모델 -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팔리는 전기차

모델	가격	항속거리	특징
빈패스트 리모 그린 (Limo Green)	\$1.5만~2만	300~400km	2026년 1~2월 판매 1위. 7인승 MPV. 택시·차량공유 최적화
빈패스트 VF 3	\$1.2만~1.3만	210km	미니 EV 판매 1위. 도심 최적화. 2위 모델.
빈패스트 VF 5	\$1.5만~1.7만	326km	소형 SUV. 젊은 층 인기. 3위 모델.
BYD 돌핀	\$2.5만~2.7만	427km	태국 생산 전환으로 가격 인하 추진. 중가 EV 경쟁자
현대 아이오닉 5	\$4.5만~5만	481km	프리미엄 EV 1위. 현대차 점유율 견인 모델
우링 마카롱(예정)	\$1.1만~1.3만	205~300km	2026년 중반 출시 예정. VF3 과 정면 경쟁

편집부 평가 - 한국기업에게 베트남 EV 혁명이 의미하는 것

현대차·기아는 이미 수혜 중이다. 한국의 부품·소재·충전 인프라 기업에게 기회가 열렸다.

① 배터리·부품 공급: 빈패스트 2026년 국내 부품 80% 목표 → 한국 2차전지·모터 부품사 진출 수요.

② 충전 인프라: V-Green 초고속 허브 99개 신설 → 한국 충전 설비·결제 시스템 수출 기회.

③ EV 보험·금융: EV 급증으로 새 보험 상품·리스 금융 수요 폭발. 한국 손보사 베트남 진출 검토 시점.

④ 주의: 빈패스트 독주 구도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 중. 프리미엄 차별화 전략이 필수다.

[출처: Focus2move · Mordor Intelligence · Euromonitor · VietNamNet · MarqStats · VnExpress International · Statista (2025~2026.05)]



사파마 힐링캠프
SAFAMA HEALING CAMP

14세기부터 19세기 명화
숲속의 야외오픈 프로젝트

르네상스
에서
인상주의
까지

2026. February. 14
2026. August. 14

세계명화 대전

서양 미술사 600년 레플리카 전을 엿니다

넓은 벽을 허문다 - 하노이 · 호치민 구도심 재개발과 서민 주거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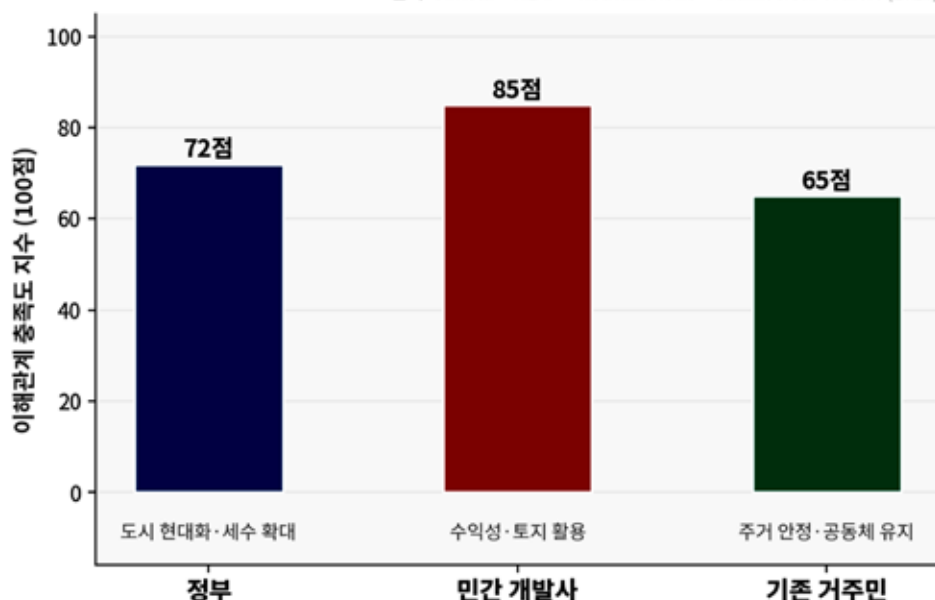
2,500개+ 노후 건물 재개발 대상 · 사회주택 100만 호 목표 · CT&D 대만 · 빈흠스 외자 진입 · 싱가포르 HDB 모델 벤치마킹

하노이와 호치민 구시가지의 넓은 아파트들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뜨려야 할 때가 됐다.

베트남에는 전국에 2,500개 이상의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1960~80년대 소련식 사회주의 주거 모델로 지어진 "끄따이(KTT·Khu tập thể)" 집단주거 단지로, 지금은 구조적 위험 판정을 받은 것들도 적지 않다. 2026년 베트남 정부는 마침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재개발 대상 노후 건물	사회주택 2030 목표	하노이 올림픽 도시
2,500개+	100만 호	9,171ha
하노이 · 호치민 집중	\$362억 공공 · 민간 동원	총 55만 호 · 2035 완공

구도심 재개발 3대 이해관계자 현재 이익 충족도 (전문가 평가)
출처: Savista · VILAF · VietNam News · Chambers&Partners (2026)



베트남 사회주택 목표 vs 실제 공급 (누적 만 호, 2022~2030)
출처: 건설부 · 하노이타임즈 · Knight Frank Vietnam (2026)



▲ 구도심 재개발 3대 이해관계자 충족도 | 사회주택 목표 vs 실제 공급 진행 (만 호, 2022~2030) | 출처: Savista · VILAF · 건설부 · Knight Frank Vietnam (2026)

■ 하노이 구도심 재개발 - "4대 복합단지"를 시작으로 전면전 선포

2026년 3월,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전체 48개 동에 걸쳐 노후 아파트 전수 조사를 공식 지시했다. 이것이 20년 논의에서 실행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다.

하노이가 우선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한 4대 복합단지는 김리엔(Kim Liên)·쑹투(Trung Tự)·쿠엥트엉(Khuong Thuy)·하오남(Hào Nam)이다. 이들은 모두 1960~70년대에 지어진 소련식 집단주거로 지금은 도심 황금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 2026년 1월 대만 부동산 그룹 CT&D 아서 킹 회장이 하노이 시장 부이 다이 탕을 직접 면담하고 "타인쑤언박(Thanh Xuân Bắc) 단지 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

사를 표명했다. CT&D는 이미 호치민 푸미흥 도시개발을 완성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외자 파트너다. 하노이시는 "이 프로젝트는 수도의 장기 도시계획 전략과 일치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 법적 틀을 활용하고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 호치민 구도심 재개발 - 1975년 이전 건물 전면 재건, 2035년 완료 목표

호치민시는 2035년까지 197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전체를 재건하고 1975~1994년 건물까지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핵심 정책은 주민 보호 우선이다. 재건 후 주민에게는 원래 면적과 같거나 최대 두 배의 새 아파트를 보장한다. 이주를 원치 않는 주민은 이주권을 매도하거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보상·이주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민과 직접 토지이용 협상도 가능하다. 부이 쑤언 팡 호치민 부시장은 "재개발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의 주민 권리가 걸린 문제"라며 "속도보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HDB의 SERS(선택적 블록 재개발)·VERS(자발적 재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사회주택 100만 호 - 구도심 재개발과의 연결 고리

정부는 구도심 재개발 물량의 일부를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복합 도시 재개발" 정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6년 3월 하노이 인민위원회 계획 107호는 "노후 아파트 재개발 시 사회주택 또는 이주 정착 주택으로 전환 가능"함을 명시했다. 즉, 재개발로 비워진 부지의 일부를 시장 분양이 아닌 사회주택 공급에 할당하는 구조다. 2030년까지 100만 호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는 849조 동(\$362억)을 동원하기로 했다. 국은행(SBV)은 이미 120조 동(\$51억) 저리 대출 패키지를 운용 중이며 사회주택 구매자는 연 8.2%로 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2026년 현재 진행률은 목표 대비 약 58%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 핵심 걸림돌은 인허가 지연·보상비 급등·시공사 수익성 부족으로 서비스사(Savista) CEO 응우옌 락응은 "법적 절차 간소화와 우대 금융이 없으면 사회주택 공급 목표는 달성 불가"라고 단언했다.

외국인 투자 접근 가능성 - 기회와 조건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주택법 2024·시행령 98/2024·140/2025 - 외국 투자자 선정 절차 명확화. 수익성 인센티브 추가
투자 구조	투자자가 보상·이주 계획 포함한 재개발 제안서 제출. 주민과 직접 토지이용 협상 허용
수익성	도심 입지(황금 부지) + 용적률 상향 = 상업·프리미엄 아파트 수익으로 사회주택 비용 상쇄
사례	대만 CT&D 하노이 진입(4월) · 빈흠스 올림픽 도시 개발(\$39.5B) · 외국계 리츠 FTSE 편입 기대

편집부 평가 - 구도심 재개발, 지금이 외국인 진입의 골든타임인가

"재개발은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 합의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구도심 황금 입지 +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 투자 수익성은 이론적으로 충분하다.

결정적 리스크: 주민 보상 협의 지연. CT&D·빈흠스 사례에서 보듯 합의 과정이 수년을 잡아먹는다.

사회주택 연계 의무(전체 20% 이상) + 주민 이주 보장 조건을 수익 모델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한국 기업 기회: 건설·설계(삼성물산·현대건설)보다 법률·컨설팅·금융 구조화 분야 선진입이 현실적이다.

배움이 앱이 됐다 - 2026 베트남 교육 브랜드를 이끄는 3대 트렌드와 주목 플랫폼

이러닝 시장 \$39억 • CAGR 18.3% • 국제학교 외자 \$45억 • ELSA•MindX•Edupia•Vinschool — 교육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처다

베트남 부모들은 GDP 대비 가장 많은 돈을 교육에 쓰는 국민 중 하나다.

가계 지출의 평균 24%가 교육에 투입된다. 그 돈이 이제 재래식 학원에서 앱•플랫폼•국제학교로 이동하고 있다. 2025년 베트남 이러닝 시장은 \$39억을 기록했고, 2032년에는 \$126억으로 세 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CAGR 18.3% - 아시아 교육 시장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러닝 시장 2025년	국제학교 외자 누적	EdTech 투자 2023 기준
\$3.9B 2023년 \$12.6B 목표	\$4.5B+ 430개 공동 프로그램	\$4억+ 70개 펀드 참여

■ 트렌드 ① - AI 발음 교정 앱 ELSA, 동남아 1위 어학 플랫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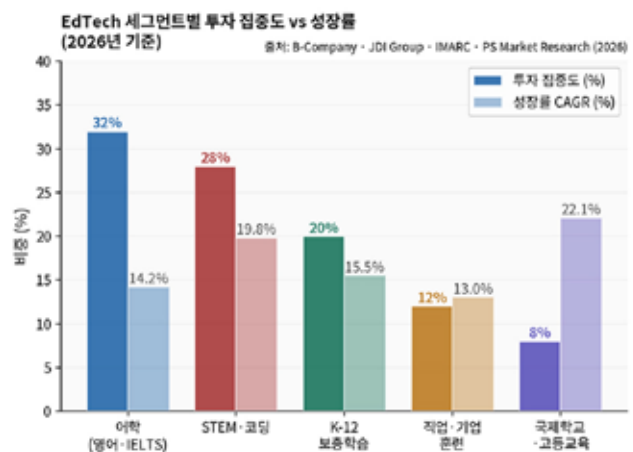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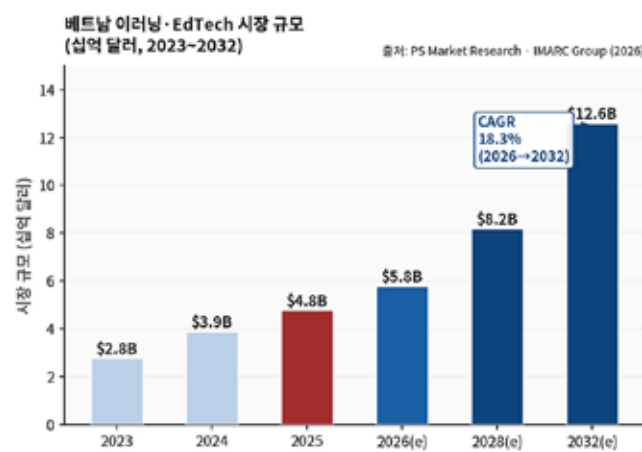
이번 주 베트남 교육 시장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브랜드는 단연 ELSA(English Language Speech Assistant)다.

ELSA는 AI가 발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교정해주는 영어 앱으로 2016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베트남계 미국인 VN 응우옌이 만들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며, 베트남 내 다운로드 1위 교육 앱이다. 기업 영어 교육 시장(B2B)으로 확장하며 삼성•LG•현대차 베트남 법인이 직원 영어 교육 도구로 채택했다. 베트남 가계의 "어학 지출 1순위"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ELSA 같은 앱 구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어학 세그먼트는 전체 EdTech 투자의 32%를 차지하는 최대 카테고리다.

■ 트렌드 ② - MindX • CodeGym • TEKY: STEM 코딩 교육의 삼각편대

"코딩이 수학보다 중요하다" - 베트남 부모들 사이에서 이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STEM•코딩 세그먼트의 CAGR은 19.8%로 전체 EdTech 중 최고 성장률이다.

MindX는 5~18세 어린이•청소년 대상 코딩•로봇 공학 교육 센터로 전국 40개 이상 센터를 운영한다. Google•Microsoft와 공식 파트너십으로 인증 과정을 제공한다. CodeGym은 자바•파이썬 중심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으로 수료생의 85%가 6개월 내 IT 취업에 성공한다는 자체 통계를 내세운다. TEKY는 5세~18세 STEM 전문으로 스웨덴 Sweef Capital에서 \$500만 투자를 유치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공립학



▲ 베트남 이러닝•EdTech 시장 규모 추이 (2023~2032) | 세그먼트별 투자 집중도 vs 성장률 | 출처: PS Market Research • IMARC • B-Company • JDI Group (2026)

교의 80%에 EdTech 도입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들 3사는 학교 납품•방과후 확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 트렌드 ③ - 국제학교 • 빈스쿨(Vinschool): 프리미엄 교육의 새 기준

ADB가 \$1억 5,000만 달러를 빈스쿨에 투자한 것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다. "베트남 프리미엄 교육 시장이 기관급 투자 대상이 됐다"는 공식 인정이다.

빈스쿨(Vinschool)은 빈그룹(Vingroup)이 운영하는 K-12 사립학교 체인으로 하노이•호치민•홍옌에 걸쳐 2만 400명 학생을 수용한다. ADB의 지속가능

연계대출 \$1.5억은 2025년 3월 베트남 사립교육 부문 첫 기관급 투자다. 외국계 국제학교도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브리티시인터내셔널스쿨•사이공사우스 국제스쿨•RMIT 베트남이 캠퍼스 확장을 진행 중이며, 외자 누적 \$45억+에 430개 공동 학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제학교 연간 학비는 1인당 1만 5,000~3만 달러로 "교육이 베트남 중산층의 최대 소비 항목"임을 수치로 증명한다.

베트남 교육 주요 브랜드 현황			
브랜드•플랫폼	유형	주력 분야	현황 및 특징
ELSA Speak	미국/베트남	영어 발음•어학	글로벌 2억 사용자. 베트남 다운로드 1위 교육 앱. 삼성•LG 기업 채택
Edupia	베트남	K-12 실시간 튜터	5백만 사용자, 40만 유료 결제. \$2,400만 투자 유치. 인도네시아 진출
MindX	베트남	STEM•코딩	40개 센터. Google•MS 파트너. 5~18세 대상
CodeGym	베트남	온라인 코딩	수료생 85% 6개월 내 취업. 자바•파이썬 집중
TEKY	베트남	STEM 전문	Sweef Capital \$500만 투자. 공립학교 납품 추진
Vinschool	베트남	K-12 프리미엄	ADB \$1.5억 투자. 2.04만 학생. 빈그룹 운영
Topica	베트남	고등•직업 온라인	동남아 최대 EdTech 플랫폼 중 하나. 기업훈련 강점
RMIT Vietnam	호주	대학 국제학위	호치민•하노이. 연간 \$2.5만. 졸업생 취업률 최상위

외국 투자자•기업에게 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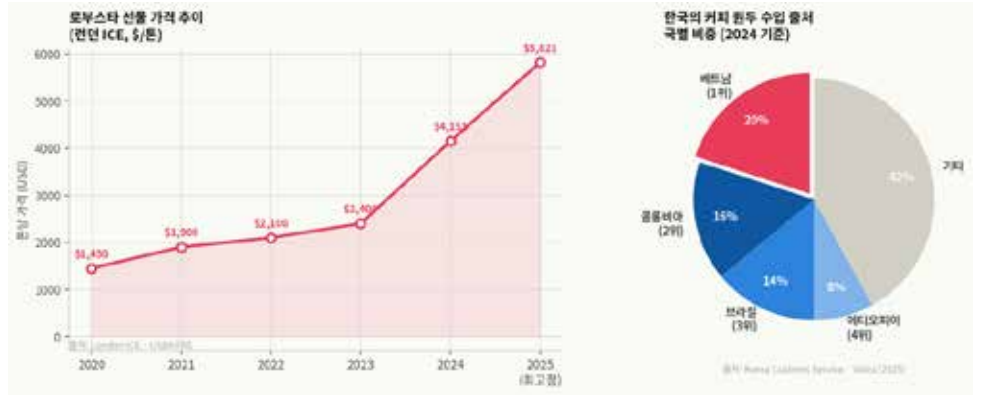
- 베트남 교육 시장은 "가계가 돈을 가장 기꺼이 쓰는 분야"다. 경기 침체에도 교육비는 줄지 않는다.
- EdTech 플랫폼: CAGR 18.3%, 아직 독점 플레이어 없음. 언어•STEM•기업훈련이 3대 고수익 세그먼트.
 - 국제학교 운영: 외자 \$4.5억+ 진입. 연 \$1.5~3만 학비. 안정적 수익 모델 + 브랜드 가치.
 - 한국 기업 특화 기회: AI 튜터(ELSA형)•STEM 교구•기업 어학 교육 SaaS가 가장 빠른 진입 루트다.
 - 주의: 교육법 외자 지분 규제(최대 49~100% 업종별 상이). 사전 법률 검토 필수.

[출처: The Shiv • B-Company • IMARC Group • PS Market Research • JDI Group • Expert Market Research • Technavio • Nexdigm (2024~2026.05)]

세계 2위 베트남 커피 원두 수출 전략과 한국의 스마트 수입 전략



4. 원두 가격 급등과 생산 위기 - 지금 전략이 필요한 이유



▲ 로부스타 가격 추이(좌) • 한국의 커피 원두 수입 출처 비중(우)
| 출처: London ICE • Korea Customs Service

로부스타 가격은 2020년 대비 2025년 고점에서 4배 이상 급등했다. 주된 원인은 ①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지 가뭃·홍수, ② 전 세계 재고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③ 베트남 농가의 수확 후 고가 대기(물량 미방출) 전략이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커피 소비량(1억 6,810만 백)이 생산량(1억 7,490만 백)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로 버퍼 재고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5. 한국의 베트남 커피 수입 현황

구분	현황
수입 규모	2024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에서 약 29,781톤 수입 (3위)
수입 금액	2024~25년 약 2억 3,000만 달러 (베트남산 커피 한국 수입 3위)
한국 내 점유율	베트남산 20% • 콜롬비아 16% • 브라질 14% (1~3위)
2025년 증가율	전년 대비 69% 급증 —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성장률
수입 방식	대부분 국제 중개상 경유 현물 거래 - 직거래 비중 낮음
주요 수입 업체	동서식품·스타벅스코리아·커피빈·롯데네슬레 등 대기업 중심
관세율	한 - 베트남 FTA (VKFTA) 적용 시 생두 0% — 관세 혜택 있음
주요 문제점	중개상 의존으로 원산지 정보 불투명, 선도계약 미활용, 가격 변동 대응 부재

6. 한국의 스마트 원두 수입 전략 - 5가지 제안

전략	핵심 내용	기대 효과
① 선도계약 (Forward Contract) 확대	6~12개월 선도계약으로 가격 고정. 현재 한국 대부분 기업은 현물 위주로 가격 변동에 무방비.	가격 급등 리스크 30~50% 감소 안정적 원가 관리 가능
② 베트남 농가 직거래 (Direct Trade) 구축	다락·람동성 농가·협동조합과 직접 MOU 체결. 중개상 마진(톤당 \$200~400) 절감 가능.	비용 절감 + 원산지 추적 가능 품질 관리 강화
③ VKFTA 활용 극대화	한-베트남 FTA 생두 관세 0% 적용. EU EUDR(산림파괴 규제) 사전 준비한 베트남 산지 선택.	관세 절감 + EU 규제 대응력 확보
④ 산지 분산 (멀티 소싱)	베트남 로부스타 + 에티오피아 아라비카 + 브라질 혼합 구매. 단일 산지 의존 리스크 분산.	가격·품질·공급 리스크 동시 분산
⑤ 스페셜티 로부스타 시장 선점	베트남 Fine Robusta (다락 고급 로부스타) 선도 계약. K-커피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창출.	프리미엄 시장 선점 로부스타 인식 전환

베트남 커피 원두는 단순한 수입 상품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이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전략 없이 현물 구매를 반복하면 원가 상승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선도계약, 직거래, 산지 분산, FTA 활용의 4가지를 조합하면 가격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전략을 세울 타이밍이다.

[Mekong Times 편집부]

세계 2위	\$8.92B	96%	+69%
생산량 (브라질 다음)	2025년 수출액 (역대 최고)	수출의 로부스타 비중	한국의 베트남 커피 수입 증가율(2025)

1. 베트남 커피 수출액 추이 - 5년 만에 3배 성장

2020년 29억 달러에서 2025년 89억 달러로 5년 만에 3배 성장했다. 2024~2025년 급등은 기후변화로 브라질·베트남 생산량이 감소하고 로부스타 선물가격이 런던 ICE 기준 사상 최고치(톤당 \$5,82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구조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 베트남 커피 수출액 추이 (2020~2025) | 출처: VICOFA • Vietnam Customs • InCorp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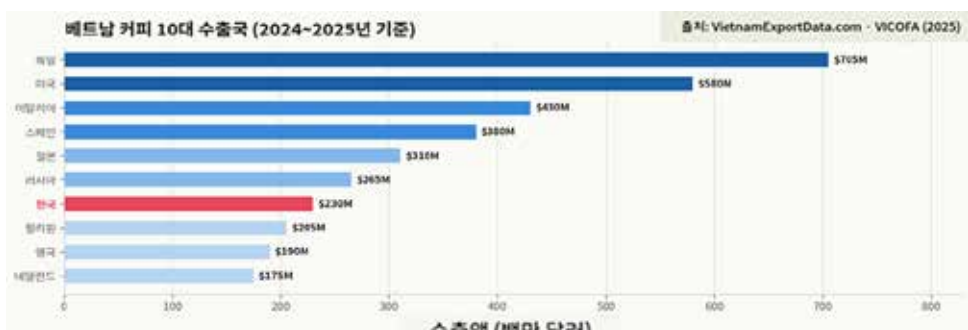
2. 세계로 가는 베트남 커피 - 수출 경로와 채널

베트남 커피는 80개국 이상으로 수출된다. 주요 경로는 세 가지다.

수출 채널	비중	주요 거래 방식	특징
생두(Green Bean) 직수출	약 90%	런던 ICE 선물 연동 국제 중개상 경유	가공 없이 원두 형태로 수출 가격 변동 리스크 높음
인스턴트·가공 커피	약 8%	네슬레·트루우유엔 등 브랜드 완제품	고부가가치, 아시아 시장 성장세
스페셜티·로스팅 커피	약 2%	직거래 • 프리미엄 계약	급성장 중, 일본·한국 수요 증가

수출의 90%가 여전히 가공 없는 생두 형태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가공 커피 비중을 3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 전체 수출액의 85%는 브랜드 없이 원료 형태로 팔리는 구조다.

3. 베트남 커피 10대 수입국



▲ 베트남 커피 10대 수출국별 수출액 (2024~2025) | 출처: VietnamExportData.com • VICOFA

독일이 7억 달러로 1위이며, EU 전체가 베트남 커피 수출의 약 41%를 차지한다. 아시아 시장은 일본·한국·중국·필리핀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특히 한국은 2025년 베트남 커피 수입이 전년 대비 69% 급증했다.

HWASEUNG Enterprise

화승엔터프라이즈

당신이 아는 화승 당신이 몰랐던 화승

하나를 하고도 열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열을 하고도 하나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의 부족함을 연구하고
길을 닦기보다는 속과 뒤, 그리고 신뢰를 다져온 화승그룹

진심이 있는 기술은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있는 혁신은 내일이 다릅니다

교민과 항상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

HWASEUNG
Enterprise

"메이드 인 베트남"이 쿨해졌다

2026 로컬 브랜드 혁명, 글로벌 패스트패션을 처음으로 앞서다

로컬 점유율 45% 첫 역전 · 14일 만에 신제품 출시 · BLACKPINK 로제가 입은 베트남 옷 · "쇼퍼테인먼트"가 패션의 규칙을 다시 쓴다

2026년, 베트남 패션 역사에 처음으로 이런 숫자가 등장했다.

로컬 브랜드 점유율 45% - 글로벌 패스트패션(55%)을 바짝 뒤쫓더니 올해 처음으로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라·H&M·유니클로가 베트남에서 고전하는 사이, DirtyCoins·HADES·Kilomet109·GIA Studios가 틱톡·인스타그램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메이드 인 베트남"이 더 이상 저렴한 OEM의 상징이 아니다. 베트남 Z세대가 직접 만들고, 직접 입고, 직접 파는 브랜드들이 지금 동남아 패션의 중심을 바꾸고 있다.

왜 지금 로컬 브랜드인가 - 역전의 3대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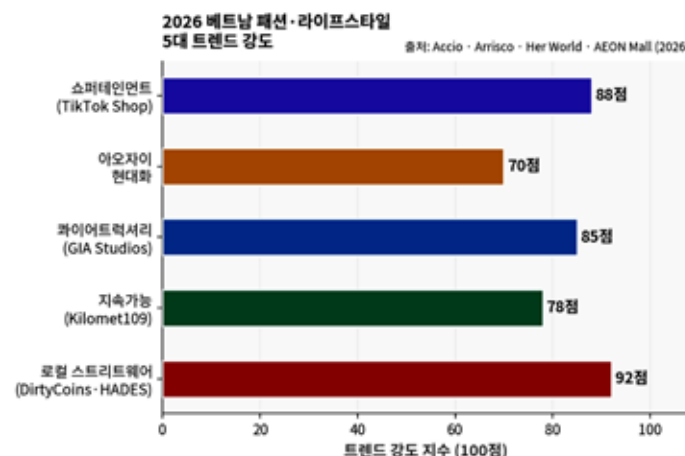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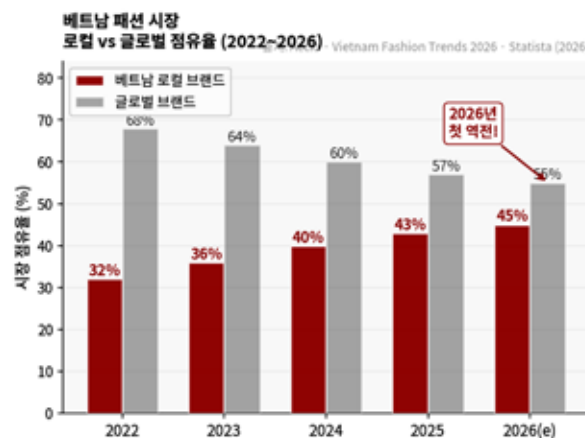
로컬 브랜드가 글로벌 경쟁자를 이기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했다.

첫째, 속도다. 베트남 로컬 브랜드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데 평균 14일이 걸린다. 자라의 2주, H&M의 3~4주보다 빠르거나 같다. 유행이 SNS에서 터지는 순간 현지 브랜드가 먼저 제품을 낸다. 둘째, "쇼퍼테인먼트(Shoptertainment)"다. 틱톡샵 라이브쇼핑이 패션 구매 경험을 바꿨다. 고객은 스트리머가 직접 입고 설명하는 것을 보며 즉시 구매한다. 글로벌 브랜드가 따라잡기 어려운 "현지 감성 실시간 소통"이 핵심 무기다. 셋째,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과세" 정책이다. 해외 플랫폼 직구에 최대 15% 관세·VAT가 부과되면서 로컬 브랜드와의 가격 격차가 커졌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브랜드 - DirtyCoins · GIA Studios · Kilomet109

세 브랜드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베트남 패션의 새 얼굴을 만들고 있다. 공통점은 단 하나 — "베트남다움"을 전면 내세운다.

DirtyCoins는 용·황제 상징 등 전통 베트남 문양을 현대 스트리트웨어에 이식했다. 그래픽 티셔츠 한 장(약 \$18)이 글로벌 힙합 씬에서 입히기 시작했다. 틱톡샵에서 신제품 드롭 당일 완판이 반복된다. GIA Studios는 정반대다. 미니멀·콰이어트럭서리 포지셔닝으로 보라오(Bào Lộc) 실크를 사용한 프리미엄 라인이 싱가포르·한국 바이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파리 컬렉션 참가 이후 국제 패션 미디어에 "베트남판 미니멀리즘"으로 소개됐다. Kilomet109는 하노이 기반 지속가능 패션 선구자다. 천연 쪽 발효 염색·전통 직조 기법을



▲ 베트남 패션 시장 로컬 vs 글로벌 점유율 변화 | 2026 핫 트렌드 강도 지수 | 출처: Accio · Vietnam Fashion Trends 2026 · Arrisco · AEON Mall (2026)

현대 실루엣에 접목한다. BLACKPINK 로제가 착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6년 베트남 패션 5대 트렌드 —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입는가"보다 "어떻게 나를 표현하는가"가 베트남 Z세대 패션의 새 기준이다.

① 로컬 스트리트웨어: DirtyCoins·HADES·ROI Workshop이 이끈다. 용·불꽃·베트남 문자를 그래픽으로 녹인 오버사이즈 티·후디가 핵심 아이템. ② 콰이어트럭서리: 로고 없이 소재와 재단으로 말하는 스타일. GIA Studios·Metiseko가 이 시장을 개척 중이다. ③ 아

오자이(Ao Dai) 현대화: 전통 베트남 의상을 캐주얼·오피스웨어로 재해석. 틱톡에서 #AoDai 해시태그가 매달 수익 뷰를 기록한다. ④ 지속가능 패션: 20~30세 소비자의 70%가 친환경 제품에 프리미엄을 기꺼이 낸다. Kilomet109·Moi Dien이 선두다. ⑤ 쇼퍼테인먼트: 패션 구매의 70%가 TikTok Shop 라이브에서 시작된다. "입어보고 사는" 경험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동했다.

편집부 평가 - 한국 기업에게 이 혁명이 의미하는 것

베트남 로컬 브랜드는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① OEM→공동 브랜드: 한국 소재·기술 + 베트남 디자인·스피드 조합이 가장 유망한 모델.
- ② 아오자이 현대화: 한국 패션 디자이너의 베트남 로컬 브랜드 협업 컬렉션 기회.
- ③ 지속가능 소재: 한국 기능성 친환경 원단의 베트남 로컬 브랜드 공급 수요가 빠르게 증가 중이다.
- ④ TikTok Shop 라이브: 한국 패션 브랜드도 베트남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 라이브쇼핑으로 진입 가능하다.

[출처: Accio Vietnam Fashion Trends 2026 · Vespa Agogo · Her World Singapore · Arrisco · Trend Xplore · AEON Mall · Statista Vietnam Fashion Market (2025~2026.05)]

주목 브랜드 한눈에 보기

브랜드	스타일	가격대	특징
DirtyCoins	스트리트웨어	\$15~70	용·황제 문양 그래픽. 글로벌 힙합 씬 주목. 틱톡 드롭 완판
HADES	다크웨어	\$20~60	2014년 창립 베트남 스트리트 개척자.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GIA Studios	콰이어트럭서리	\$80~300	보라오 실크. 파리 컬렉션 참가. 싱가포르·한국 바이어 주목
Kilomet109	지속가능	\$60~250	쪽 발효 염색. 전통 직조. BLACKPINK 로제 착용으로 세계 주목
FANCi Club	걸리시	\$40~150	호치민 중심. 인스타그램·틱톡 필수 촬영지 플래그십
ROI Workshop	언더그라운드	\$15~40	유니섹스 다크 스트리트. 2019년 창립. 틱톡 신세대 팬덤
Metiseko	에코럭서리	\$100~400	유기농 인증. 외국인 관광객 고급 기념품 1위 브랜드

Healing in Nature – Vol. 4

솔향이 몸을 씻어낸다 달랏 소나무 숲, 베트남의 치유 수도

해발 1,500m 고원 • 연평균 18~24°C • 피톤치드 소나무 숲 • 선흥욕(Shinrin-yoku) • 박냐 선원 • 뚜엔람 호수

달랏은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 도시다.

해발 1,500m 고원, 연평균 기온 18~24°C. 호치민의 열기와 소음에서 300km 북쪽, 차로 6~7시간, 비행기로 45분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폐 깊숙이 쌓인 도시의 먼지를 쓸어낸다.

달랏은 오래전부터 치유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19세기 말 프랑스 총독부 의사 알렉상드르 예르생이 "열대의 피로를 회복시킬 고원"을 찾아 올라온 곳이 바로 여기다. 당시 그는 이 땅의 공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기록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그것을 "피톤치드"와 "산림욕(Shinrin-yoku)"이라고 부른다.

달랏을 알기 위한 핵심 정보

위치	럼동성(Lâm Đồng) 달랏시 - 호치민 북쪽 300km, 비행기 45분·차 6~7시간
고도·기후	해발 1,500m • 연평균 18~24°C • 4~11월 우기, 12~3월 건기(최고 방문 시즌)
숲 규모	소나무 숲 면적 2만 헥타르 이상 • 달랏 시내와 외곽 전역에 산재
특산	딸기·아보카도·아티초크·국화·달랏 와인·하이랜드 커피 원두
찾아가기	호치민 편선넷 공항 → 달랏 리엔크영 공항 (항공 45분). 또는 호치민 버스터미널 → 달랏 직행 버스 6~7시간
최적 방문	12~3월 건기. 단, 4~5월 새벽 안개가 가장 신비롭다는 현지인 추천 시즌

① 소나무 숲 산림욕(Shinrin-yoku) - 달랏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공기

달랏의 소나무는 어느 소나무와 다르다. 해발 1,500m 고원에서 자란 3엽송(Pinus kesiya)이 내뿜는 피톤치드 농도는 해안 저지대 소나무보다 두 배 이상 진하다.



뚜엔람 호수(Tuyền Lâm Lake) 수변 소나무 길이 달랏 산림욕의 정석이다. 호수 둘레 약 15km를 따라 걸으면 수면에 반사되는 아침 햇살과 솔향이 번갈아가며 감각을 채운다. 일본 의학계가 확인한 산림욕 효과 -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 12~13% 감소, NK 세포(자연 살해 세포) 활성화 증가, 혈압 완화 - 이 모든 것이 달랏 소나무 숲 한 시간 걷기에서 시작된다. 맨발로 솔잎 위를 걷는 "어싱(Earthing)"을 더하면 땅의 음

② 박냐 선원 새벽 명상 - 안개 속 적막이 마음을 비운다

달랏에서 가장 신성한 치유 공간은 숲이 아닐 수 없다.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새벽 5시, 박냐 선원(Thiền Viện Bát Nhã)의 종소리가 울릴 때다.

박냐 선원은 달랏 시내에서 차로 15분, 소나무 숲 사이 조용한 언덕에 자리잡은 선불교 수행처다. 이른 아침 운무가 솔숲을 덮은 풍경은 어느 관광지에서도 살 수 없는 달랏만의 선물이다. 방문자도 경내를 조용히 거닐며 이른 아침 예불에 참관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 이것이 박냐가 주는 치유의 본질이다. 방문 시 조용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다.

③ 끼우닷 차밭 아침 산책 - 안개 위로 솟은 차나무 사이를 걷다

달랏 시내에서 남쪽으로 24km, 해발 1,650m에 펼쳐진 끼우닷(Cầu Đất) 차밭. 이른 아침 구름이 차밭 아래를 채우면 차나무들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끼우닷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차 생산지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아라비카 커피·우롱차·녹차의 산지다. 새벽 6시, 차 따는 여인들이 안개 속에서 손을 움직이는 장면은 달랏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그림이다. 트레킹 코스는 1~3시간으로 난

이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산책 후 직접 판 채취으로 만드는 한 잔의 차가 몸을 따뜻하게 감싼다.

④ 달랏 웰니스 리트리트 - 피톤치드 요가 • 카카오 리추얼 • 사운드 배스

소나무 숲 속 별장에서 진행되는 달랏 특화 웰니스 프로그램이 국내외 힐링 여행자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만달라 베트남(Omandala Vietnam)을 포함한 여러 리트리트 센터가 소나무 숲 안에 자리를 잡고 4박 5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벽 솔숲 요가, 오전 참선 명상, 오후 달랏 와인과 함께하는 자연 트레킹, 저녁 카카오 리추얼과 티베탄 싱잉볼 사운드 배스까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비우는 하루가 반복된다. 달랏 와인(Vang Đà Lạt)을 밤하늘 아래 홀짝이며 낯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다. 가격은 4박 기준 1인 250~450달러 수준으로 동남아 웰니스 리트리트 중 합리적이다.

달랏은 치유를 "하는" 곳이 아니다.

소나무 숲에 들어서면 순간, 치유는 그냥 시작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디에도 도착할 필요가 없어도 괜찮은 곳. 100년 전 프랑스의 사가 찾아 올라왔던 그 이유를, 달랏의 공기를 한 번 마셔본 사람은 모두 이해한다.

다음 호 예고 • Vol. 5 - 까띠엔(Cát Tiên) 국립공원 - 야생 긴 팔원숭이의 새벽 합창

[출처: Vietnam.vn • TravelAddict • Laka.ai • Tripaneer (Omandala Vietnam) • Klook • Visit Dalat • Vietnam National Administration of Tourism (2025~2026)]

새벽 4시 반, 정글 속으로 까띠엔의 긴팔원숭이가 부르는 노래

호치민 북쪽 150km · 72,000헥타르 열대 우림 · UNESCO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 황금빛볼긴팔원숭이 · 악어 호수 · 밤의 사파리

새벽 4시 45분, 동나이강 선착장에 서면 아직 하늘은 검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공원 본부에 도착하면 레인저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앞을 가리킨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날의 목적은 단 하나 - 황금빛볼긴팔원숭이(Golden-cheeked Gibbon)의 새벽 합창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는 것.

까띠엔(Cát Tiên) 국립공원은 호치민 북쪽 150km, 동나이성과 럽동성에 걸쳐 72,000헥타르의 저지대 열대 우림을 품고 있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이 숲은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 피해를 입고도 살아남은 생명의 기적이다.



까띠엔을 알기 위한 핵심 정보

위치	동나이성·렘동성·빈프억성 경계 - 치민 북쪽 150km, 달랏 남동쪽 175km
면적	72,000헥타르 (일부 문헌 80,000헥타르) 저지대 열대 우림
지정	2001년 UNESCO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람사르 습지(바우사우 악어 호수)
찾아가기	호치민 미딘 버스터미널→탄푸 버스→까띠엔 선착장(약 4시간). 달랏에서 차로 3시간
입장료	성인 50,000동 / 아동 20,000동 (보트·투어·야간 사파리는 별도)
최적 방문	11~4월 건기. 긴팔원숭이 트레킹은 연중 가능 (새벽 4시 45분 출발 필수)



딘가에서 날카롭고 긴 울음이 터진다. 레인저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황금빛볼긴팔원숭이 가족이 나뭇가지를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투어비 약 60달러(1인), 최대 4명 소그룹. 그 돈이 직접 공원 보전 자금으로 쓰인다.

● ② 다오피엔 섬 - 멸종위기 영장류 구조센터

선착장에서 배로 5분, 동나이강 위에 작은 섬이 있다. 다오피엔(Đảo Tiên·선녀의 섬)은 베트남·캄보디아에서 불법 거래로 포획된 야생 영장류를 구조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재활 센터다.

황금빛볼긴팔원숭이·흑목도리더크랑구르·실버랑구르·피그미로리스가 이곳에서 재활 중이다. 2008년 개설 이후 수백 마리의 영장류가 이 섬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갔다. 방문자는 하루 최대 30명으로 제한되며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두 시간만 개방한다. 섬 전체에 원주율 과일나무 묘목이 수백 그루 심어져 있어 방문할 때마다 섬 자체가 조금씩 더 울창해진다. "이 나무

들이 자라면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다" - 레인저의 설명이 이 섬이 하는 일의 전부를 말해준다.

● ③ 바우사우 악어 호수 트레킹 - 람사르 습지의 심장부

공원 본부에서 자전거로 9km, 이후 4km 도보. 총 3시간의 이 여정 끝에 나타나는 바우사우(Bàu Sâu) 호수는 람사르 협약이 지정한 국제 중요 습지다.

호수에는 500마리 이상의 시암악어가 서식한다. 낮에는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어 보기 어렵지만 야간 트레킹에서는 눈동자가 헤드램프 빛에 붉게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트레킹 도중 수백 년 된 거목 등(Tung Tree)이 길을 지키고 서 있다. 높이 50m 이상, 지구에서 이 규모의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악어 호수 투어비: 입장 140,000동 + 가이드 300,000동 + 보트 350,000동.

● ④ 야간 사파리- 까띠엔의 밤을 달리다

낮의 까띠엔과 밤의 까띠엔은 전혀 다른 숲이다. 해가 지면 삼바사슴·멧돼지·사향고양이·천산갑이 숲 바닥으로 내려온다.

4륜구동 차량을 타고 레인저와 함께 공원 내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1시간짜리 야간 사파리는 까띠엔에서 가장 스릴 있는 경험이다. 헤드램프 빛에 빛나는 동물의 눈동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이 신경을 곤두세운다. 운이 좋으면 가우르(인도들소와 유사한 거대 초식동물)를 만날 수 있다. 공원 내 포레스트 플로어 롯지(Forest Floor Lodge) 또는 누이뜨엉 레인저 스테이션에서 1박 후 새벽 긴팔원숭이 트레킹과 연계하는 2박 3일 코스가 가장 알차다.

● ① 야생 긴팔원숭이 트레킹 - 새벽 숲의 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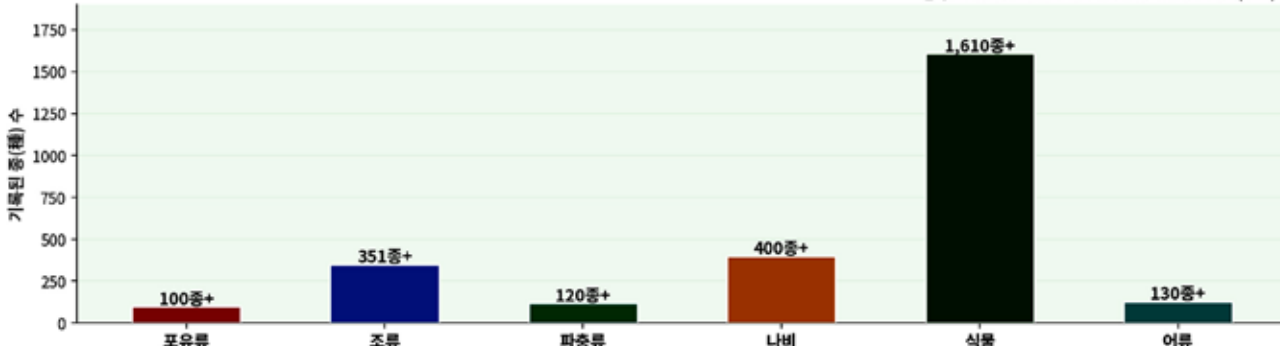
까띠엔의 가장 특별한 경험은 황금빛볼긴팔원숭이의 새벽 합창을 정글 한가운데서 듣는 것이다. 이 소리를 한 번 들은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

투어는 매일 새벽 4시 45분 선착장 집결로 시작된다. 레인저의 안내로 긴팔원숭이가 있는 "듣는 자리(listening post)"에 도착하면 해먹에 누워 숲이 깨어나는 소리를 기다린다. 밤 동물들이 잠자리로 돌아가고 낮 동물들이 일어나는 그 경계의 시간, 갑자기 수관 어



까띠엔 국립공원 생태 다양성 -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72,000헥타르 · 호치민 북쪽 150km)

출처: Cat Tien National Park · WANEE · VIETNATURE (2026)



▲ 까띠엔 국립공원 생태 다양성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 72,000헥타르) | 출처: Cat Tien National Park · WANEE · VIETNATURE (2026)

까띠엔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곳이다.

새벽 긴팔원숭이의 합창, 밤 사파리에서 들리는 이름 모를 소리, 악어 호수 수면에 내려앉은 고요. 호치민에서 4시간이면 달는 이 숲에서 도시가 잊아간 감각들이 하나씩 돌아온다.

[출처: Cat Tien National Park · WANEE Vietnam · VIETNATURE · GetUpAndGoVietnam · Vietnature Tour · AllTrails · Cat Tien Wild Safari (2025~2026)]

새벽 다섯 시, 베트남의 하루가 시작된다 반미 · 퍼 · 껌땀 · 보네, 아침 거리 위의 네 가지 삶

플라스틱 의자 · 새벽 안개 · 국물 냄새 · 800원짜리 아침 한 끼 · 세계가 주목하는 베트남 스트리트 푸드 아침 문화



Phở 퍼 (쌀국수) - 하노이의 새벽을 여는 국물



하노이 퍼 한 그릇은 뼈를 최소 6시간 이상 끓여낸 육수에서 시작된다. 육수의 맑음이 좋은 퍼의 첫 번째 조건이다.

소뼈·생강·팔각·계피를 넣고 낮은 불로 천천히 끓인 육수는 맑지만 깊다. 거기에 얇게 썬 쇠고기(또는 닭고기)·숙주·고수·라임·고추를 더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것을 아침에 먹는다. 국물 한 모금이 몸 전체로 퍼지는 그 따뜻함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다. 하노이 퍼는 맑고 단순하다. 호치민 퍼는 더 달고 고명이 풍성하다. 퍼 틴(Phở Tìn) 하노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문을 열고 있으며 구글 리뷰 4.5점으로 외국인 방문객들이 "하노이 최고의 퍼"로 꼽는다.

Com Tấm 껌땀 - 사이공이 사랑하는 깨진 쌀밥
호치민 (사이공) · 아침 6시~오전 11시 | 35,000~80,000동 (1,400~3,200원)



"껌땀"은 깨진 쌀(broken rice)이다. 도정 과정에서 부서진 쌀이 버려지지 않고 사이공 서민의 아침을 책임지는 주인공이 됐다.

깨진 쌀은 일반 쌀보다 조금 더 포슬포슬하고 소스를 잘 흡수한다. 그 위에 철판에 구운 돼지갈비(sườn nướng)·달걀찜(trứng hấp)·돼지껌데기채(bì)·파기름을 올린다. 느억참(nuoc cham) 소스를 뿌려 모든 것을 비벼 한 손갈 떠넣는 그 순간 - 달콤하고 짭짤하고 고소하고 새콤한 맛이 동시에 펼쳐진다. 사이공 사람들은 아침 7시에 이 한 접시로 하루를 시작한다. 껌땀 밍롱(Com Tấm Minh Long), 껌땀 보아 마 껌땀 2(Com Tấm Bui) 등이 호치민 현지인이 줄 서서 먹는 대표 맛집이다.

Bò Né 보네 - 사이공 아침의 뜨거운 철판

치민 · 중부·남부 지역 / 아침 6시~11시 | 40,000~70,000동 (1,600~2,800원)



"보네"는 "쇠고기를 피한다"는 뜻이다. 뜨거운 철판에 담겨 나올 때 튀어오르는 기름을 피하라는 경고가 이름이 됐다.

주철 팬이 테이블에 도착하는 순간 치직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른다. 철판 위에는 얇게 썬 쇠고기 스테이크·달걀 프라이·빠페·소시지가 함께 지글거린다. 바게트를 뜯어 철판 위 육즙에 찍어 먹는 것이 정식 방법이다. 레몬그라스·팔각·계피 향이 배인 소스가 쇠고기에 스며들면서 베트남식 스테이크와 프랑스 조식이 절묘하게 만난다. 이 음식도 반미처럼 프랑스 식민지 유산이 베트남식으로 진화한 산물이다. 느긋하게 앉아서 먹는 음식 - 사이공 사람들이 "오늘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고 싶을 때 선택하는 메뉴다.

베트남 아침 식사에는 규칙이 하나 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새벽 5시부터 골목 여기저기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낸다. 허리 높이가 정도의 작은 플라스틱 의자, 손바닥만 한 테이블, 바로 옆을 오토바이가 스쳐 지나가는 이 자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다.

가계 지출의 24%를 교육에 쓰는 나라지만, 아침 한 끼에는 15,000~60,000동(600~2,500원)이면 충분하다. 그 한 끼 안에 베트남의 역사·지리·문화가 모두 들어있다. VnExpress 독자들이 올해 "가장 사랑하는 베트남 음식" 1위로 퍼(쌀국수)를, 2위로 반미를 뽑았다. 오늘 아침 그 두 음식의 거리로 들어가보자.

Bánh Mi 반미 - 베트남의 아침을 달리는 빵

전국/아침 5시~10시 거리 노점 어디서나 | 15,000~35,000동 (600~1,400원)



오전 6시, 하노이 항바이 거리. 자전거 집간에 바게트를 가득 싣고 다니는 할머니가 있다. 그 빵이 베트남 아침의 출발점이다

바삭한 겉껍질의 바게트가 쪼개지는 소리부터 이 음식은 시작된다. 빠페(pâté)를 바르고, 차슈(chả lụa·베트남식 소시지), 절인 당근·무, 오이, 고수, 고추를 차곡차곡 쌓는다.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그 30초 안에 프랑스 식민지 역사가, 베트남 길거리 요리의 지혜가, 그리고 매일 아침을 버터내는 서민의 에너지가 담긴다. 호치민 남부 버전은 달콤한 소스가 추가되고, 하노이 북부 버전은 빠페만으로 단순하게 채운다. 같은 이름이지만 지역마다 맛이 다른 것이 반미의 또 다른 매력이다. 2026년 VnExpress 독자 설문에서 외국인이 가장 추천하는 베트남 음식 1위.

꼭 찾아가야 할 맛집 - 도시별 추천

음식	도시	추천 맛집
반미	하노이	반미 25 (25 Hàng Cá)- 신선한 재료, 바삭한 빵. 오전 7~11시만 운영.
반미	호치민	반미 후인호아 (26 Lê Thị Riêng)-사이공 전설. 항상 대기 행렬.
퍼	하노이	퍼 틴 (13 Lò Đúc)-새벽 5:30 오픈. 소고기 퍼 전문. 구글 4.5점.
퍼	호치민	퍼 타우 베이 (433 Lý Thái Tô) -남부식 달콤한 육수. 새벽 영업.
껌땀	호치민	껌땀 밍 롱 (607 Nguyễn Thị Thập, 구 7군) - 현지인 줄서는 집.
보네	호치민	보네 타인 뚜옌 체인 - 4.5점, 500개+ 리뷰. 여러 지점 운영.

베트남 아침이 세계의 버킷리스트가 된 이유.

한 끼에 800원이면 충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수백 년이다. 프랑스 바게트가 베트남 식재료와 만나고, 깨진 쌀이 사이공 서민의 자부심이 되고, 뜨거운 철판이 느긋한 아침의 상징이 된 것 - 이 모든 것이 베트남 아침 거리 위에서 매일 아침 반복된다.

다음 호 예고 · Vol. 4 — 중부 베트남의 맛 — 분보후에·미꽁·바잉꺼안

[출처: VnExpress International · Vietnam Airlines Travel Guide · Vietnam Paradise Travel · Vespa Agogo · Asia King Travel · Vietnam Journeys Group (2025~2026)]



ONE SERVICE

베트남 진출, 원스톱 솔루션 원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 설립부터 HR, 세무·회계까지 한 번에 해결!

- ✓ 법인 설립 & 비즈니스 컨설팅
 - 외투법인, 현지법인, 외투전환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 도장, 초기 세금 신고
- ✓ 세무·회계 관리
 - 월별 세금 신고 & 기장 대행
 - 연말 정산, 재무 보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 ✓ HR & 직원 관리 서비스
 - 직원 채용 & 급여 관리 (현지 & 한국어 가능 인력)
 -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 아웃소싱 지원
- ✓ 비즈니스 컨설팅 & 행정 업무 대행
 - 공증, 번역 서비스 & 법률 준수 컨설팅
 - 공항 VIP 패스트트랙 (입국 \$18 / 출국 \$25)



원서비스는 다릅니다!

- ✓ 10년 이상의 베트남 법률·세무·HR 경험
- ✓ 한국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신속한 대응
- ✓ 투명한 비용,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 및 문의

전화: 08-3333-1004

이메일: simon@oneservice.group

주소: 65 Dang Nhu Mai, Phuong Thanh
My Loi, Thanh pho Thu Duc, HCMC

카카오: ONESERVICE1

